



1



2



3

Courtesy of Château Voltaire

1 모두 다르게 꾸민 32개의 객실 중 하나. 공간을 디자인한 프랑크 뒤랑과 건축 듀오 페스탕은 이 공간 자체가 품은 역사에서 영감을 받아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2** 라 코키유 도르(La Coquille d'Or) 바는 깊은 밤에 동네의 광장 같은 역할을 한다. 그 외 호텔 내에 자리한 레스토랑 에밀(Émil)은 훌륭한 식자재에 초점을 맞춘 심플한 요리를 선보인다. **3** 호텔 내 스파, 소재와 장식 등 다양한 요소 간의 대비와 규칙을 표현하며 최고의 장인들과 정교하고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완성해냈다.

**파리의 매력이 응축된 이상적 안식처
자딕앵볼테르의 '샤토 볼테르 호텔'**

프렌치 패션 브랜드 자딕앵볼테르의 설립자 티에르 길러(Thierry Giller)가 선보이는 샤토 볼테르(Château Voltaire)는 그가 생각하는 파리의 마법 같은 매력을 오롯이 담은 호텔이다. 평소 자딕앵볼테르를 통해 유니크하고 럭셔리하지만 과시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선보여온 그. 이번 호텔은 파리의 오랜 역사적 유산과 호화로운 아름다움, 우아하고 세련된 삶의 방식과 문화적 교류의 즐거움을 그가 생각하는 개인적 방식으로 표현해낸 것이 특징이다. 디자인을 의뢰받은 프랑크 뒤랑(Franck Durand)은 평소 인테리어뿐 아니라 패션과 뷰티, 라이프스타일 분야에서 일하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그는 건축 듀오 페스탕(Festen)과 손을 잡고 티에르의 이상을 집처럼 편안하면서도 신선한 놀라움 가득한 장소로 구현해냈다. 건물은 17세기와 18세기 건물 세 채를 합친 규모이며, 호텔이 위치한 지역은 파리의 중심인 오페라 가르니에 인근이다. 이 건물은 이전 자딕앵볼테르의 헤드쿼터였다고 하니, 건물에 대한 주인의 특별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다. 5개 층에 걸쳐 있는 32개 객실 하나하나를 유니크하게 꾸였고, 그 외에도 레스토랑과 바를 마련해놓았다.

📍 55-57, Rue Saint-Roch Paris
🌐 www.chateauvoltaire.com

